

6·29선언 전후의 언론자유 수호선언

1) 언론자유수호선언의 배경과 특징

개헌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과정을 취재하던 일부 일선기자들이 1987년 5월, <시국선언>과 함께 <언론자유수호>를 선언하는 행동력을 보이자 지체없이 전국 언론사로 연쇄 확산, 이 운동은 9월까지 이어졌다. 일선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된 이른바 <87년의 언론자유수호선언>의 내용은 첫째, 정부 당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반발. 둘째, 언론사의 대정부의 저항력 부족에 대한 갈등. 셋째, 언론환경의 개선 부진에 대한 불만 등으로서 <언론의 민주화>와 <공정보도>를 다짐한 점이 특색이다.

<87년 언론자유수호선언>파동은 6월 29일의 노태우(盧泰愚) 民正黨 대표위원 (당시 직위)의 <시국수습 선언>을 계기로 그 성격이 판이하게 바뀌었으며 나중에는 공무국의 일선 사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된 노사분규로까지 유발되기도 했다.

파동의 성격으로 보아 6·29선언 전을 전기로, 그 후를 후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. 전기는 시국선언과 함께 <언론자유수호선언>을 겸한 것이었고, 후기는 <언론의 민주화>와 함께 <공정보도>를 다짐한 점이 특징이다. 파동의 후기 끝무렵에는 일부 언론사에서 임금인상 등 언론환경 개선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분쟁으로까지 발전한 점도 특징이다.

신문 14개사, 방송 15개사, 통신 1개사 등 모두 30개의 언론사가 참여, 42회에 걸쳐 결의문 등을 발표한 것이 이른바 <언론자유수호선언>과동이다. 이 과동은 87년 5월 18일 「서울신문편집국기자」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, 「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장」이 기폭제가 되었다.

서울신문편집국기자의 결의문은 <사장의 퇴진>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일관, 표면상으로 <시국선언>이나 <언론자유수호선언>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편집국기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, 발표했다는 행동력과 이로 인한 사장의 퇴진이 바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.

서울신문 기자들의 결의문 발표 1주일 뒤인 5월 25일, 「동아일보기자 일동」은 「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주장」이란 시국선언과 함께 언론자유수호선언문을 발표했다. 그 뒤를 이어 한국일보(5·29) 부산일보(6·5) 코리아 타임스(6·8) 대구매일신문(6·12) 경향신문(6·22) 부산MBC(6·22) 기자들이 가세했다.

6·29선언으로 <언론자유수호선언>은 한동안 주춤하더니 7월 16일 「한국기자협회 KBS분회원 일동」이 「우리의 다짐」이란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<87년 언론자유수호선언> 과동이 재연 또 다시 전국으로 번졌다. 과동은 속력을 더하면서 격렬한 양상으로 바뀌었다. 과동 후기인 7월 이후의 양상은 첫째, 신문사보다 방송사의 수가 더 많았다. 둘째, MBC의 경우 4회에 걸쳐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격렬상을 보였다. 셋째, 12개 지방MBC가 참여, 방송사가 과동의 주류를 이루었다. 넷째, 경향신문, 코리아 헤럴드 등 일부 여당계 신문에서 두 세번씩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, 격렬상을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.

2) 언론자유수호를 선언한 언론사

(1) 6·29전에 선언한 언론사

△ 서울신문=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장(87·5·18, 서울신문편집국기자)

- △ 동아일보=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주장(87. 5. 25, 동아일보기자 일동)
- △ 한국일보= 현 언론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(87. 5. 29, 한국일보 서명기자 일동)
- △ 부산일보=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(87. 6. 5, 부산일보 서명기자 일동)
- △ 코리아 타임스= 현 시국과 언론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(87. 6. 8, 코리아타임스 기자일동)
- △ 대구매일신문= 시국에 관한 우리의 견해(87. 6. 2, 대구매일신문사 기자 일동)
- △ 경향신문= 본지 소각사태(87. 6. 18. 19시, 서울역 앞에서 데모대가 탈취, 소각)에 따른 우리의 입장(Ⅰ : 87. 6. 22, 경향신문기자 일동)
- △ 부산MBC=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견해(87. 6. 22, 부산문화방송 서명기자 일동)

(2) 6·29후에 선언한 언론사

- △ KBS(한국방송공사)= 우리의 다짐(87. 7. 16, 한국 기자협회 KBS분회원 일동)
- △ 한국경제신문= 우리의 입장(87. 7. 17, 한국경제신문 서명기자 일동)
- △ 광주일보= 우리의 결의(87. 7. 22, 한국기자협회 광주일보분회)
- △ 코리아 헤럴드= 선언문(Ⅰ : 87. 7. 21, 코리아 헤럴드 편집국 서명기자 일동)
- △ 코리아 헤럴드= 선언문(Ⅱ : 87. 7. 23, 코리아 헤럴드 서명기자 일동)
- △ 코리아 헤럴드= 선언문(Ⅲ : 87. 7. 27, 한국 기자협회 코리아 헤럴드 분회기자 일동)
- △ 경향신문= 경과보고와 우리의 다짐(Ⅱ : 87. 7. 31, 경향신문 17~26기 기자일동)
- △ 전북일보= 결의문(87. 8. 4, 전북일보사원 일동)
- △ MBC(문화방송)= 방송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(87. 7. 13, 문화방송보도국기자일동)
- △ MBC(문화방송)= 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(87. 7. 15, 문화방송 아나운서 일동)
- △ MBC(문화방송)= 우리의 결의(87. 7. 15, 문화방송 기술인 일동)

- △ MBC방민추(放民推)=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(87. 7. 22, 문화방송 방송 민주화추진위원회)
- △ MBC방민추=방송 민주화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(87. 8. 5, MBC 방민추)
- △ 포항MBC=우리의 결의(87. 7. 15, 포항문화방송 평의원 일동)
- △ 대전MBC=선언문(87. 7. 16, 대전문화방송 사원 일동)
- △ 안동MBC=결의문(87. 7. 16, 안동문화방송 사원 일동)
- △ 청주MBC=방송언론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견해(87. 7. 21, 청주문화방송 사원 일동)
- △ 마산MBC=지역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(87. 7. 16, 마산문화방송 보도국 기자 일동)
- △ 마산MBC=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(87. 7. 21, 마산문화방송 사원 협의회)
- △ 마산MBC=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(87. 7. 21, 마산문화방송 보직간부 일동)
- △ 전주MBC=방송 민주화를 위한 결의문(87. 7. 18, 전주문화방송 사원 일동)
- △ 울산MBC=지역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(87. 7. 18, 울산문화방송 보도국기자 일동)
- △ 원주MBC=시국민주화에 따른 우리의 견해(87. 7. 20, 원주문화방송 민주화서명 사원일동)
- △ 대구MBC=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(87. 7. 20, 대구MBC 보도국기자 일동)
- △ 대구MBC=성명서(87. 7. 31, 대구문화방송 보도국기자 일동)
- △ 춘천MBC=지역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주장(87. 7. 20, 춘천문화방송보도국 기자일동)
- △ 광주MBC=언론 민주화 선언(87. 7. 20, 광주문화방송 사원 일동)
- △ 광주MBC=결의문(87. 7. 22, 광주문화방송 언론민주화선언 서명자 116명 일동)

- △ 강릉MBC=언론자유화의 지역방송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 (87. 7. 23, 강릉문화방송사원일동)
- △ 제주신문=결의문(87. 8. 11, 제주신문사 편집국 기자 일동)
- △ 강원일보=결의문(87. 8. 18, 강원일보 편집국 서명기자 일동)
- △ 경남신문=우리의 견해(87. 8. 20, 경남신문사 25·27기 기자일동)
- △ 연합통신=언론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다짐 (87. 9. 5, 연합통신 기자협의회)